

만 점 의 생 각

# CONTENTS

서론 1 비문학(독서)은 어떤 영역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서론 2 교재 활용법

## I 필수적인 개념들

- 01 거시독해란 무엇인가? p.12
- 02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고교 수학 '집합과 명제') p.14
- 03 보조사의 의미 p.15
- 04 접속사를 보고 해야 할 생각 p.17
- 05 수능 국어의 수학적 감각 p.18
- 06 그래프 해석하기 p.19
- 07 주장의 전제와 비판 p.21

## II 문장 독해 연습

문장 독해 해설 p.38

## III 법 지문

- 01 2021학년도 6월 <법인세> p.54
- 02 2020학년도 9월 <점유/소유> p.64
- 03 2021학년도 9월 <행정 입법> p.74
- 04 2017학년도 9월 <사단/법인> p.84
- 05 2021학년도 수능 <예약> p.92
- 06 2023학년도 9월 <유류분> p.100
- 07 2023학년도 수능 <불확정 개념> p.108

## IV 경제 지문

- 01 2018학년도 수능 <오버슈팅> p.118
  - ↳2011학년도 수능 <채권> p.130
- 02 2020학년도 6월 <미시/거시 건전성> p.136
- 03 2020학년도 수능 <BIS> p.148
- 04 2022학년도 수능 <브레턴우즈> p.160
- 05 2023학년도 6월 <이중차분법> p.170

## V 인문 지문

- 01 2022학년도 예비시행 <동일론> p.182
- 02 2022학년도 6월 <인과> p.194
- 03 2019학년도 수능 <가능세계> p.206
- 04 2021학년도 수능 <북학론> p.214
- 05 2022학년도 6월 <베카리아> p.226
- 06 2024학년도 수능 <노자의 도> p.234
- 07 2011학년도 수능 <뮤지컬> p.248
  - ↳2014학년도 9월B <예술의 형식> p.254
  - ↳2021학년도 9월 <예술의 정의와 비평> p.260
- 08 2023학년도 9월 <아도르노> p.270
- 09 2022학년도 수능 <헤겔> p.282

## VI 과학 지문

### FACT와 주장

- 01 2017학년도 9월 <칼로리> p.298
- 02 2019학년도 수능 <우주론> p.306
- 03 2020학년도 6월 <개체성> p.318
- 04 2016학년도 6월B <암흑물질> p.330
- 05 2023학년도 수능 <대사량> p.336

### 건조한 서술

- 06 2017학년도 수능 <반추위> p.346
- 07 2016학년도 수능B <항부력> p.354
- 08 2023학년도 6월 <비타민K> p.362

## VII 기술 지문

- 01 2020학년도 9월 <비콘> p.374
- 02 2023학년도 9월 <검색엔진> p.382
- 03 2019학년도 6월 <키트> p.390
- 04 2022학년도 6월 <PCR> p.398
- 05 2018학년도 6월 <DNS 스푸핑> p.408
- 06 2017학년도 6월 <퍼셉트론> p.418
- 07 2021학년도 수능 <모델링/렌더링> p.426

**결론** 이 책을 끝내고 공부할 것들 p.434

## 1. 거시독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훌륭한 비문학 저자들은 글에서 한 번 쓴 단어를 다시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같은 어미나 조사, 접속사를 자주 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고유명사나 전문 용어조차도 연달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같은 단어, 같은 내용을 사전적 의미는 다르나 문맥상 동의어인 단어들로 치환하여 계속해서 재진술을 하는 것인데, 거시독해는 이런 단어들을 Chunking(덩어짓기)하여 수백 개의 단어를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묶는 독해를 말합니다. 무슨 얘긴지 감이 안 잡힐 테니 예시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종합 예술의 기원인 그리스 비극은 형식적 측면에서 높은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세계와 삶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이끌었다. 반면 근대의 오페라는 그 발전 과정에서 점차 아리아 위주로 편성됨으로써, 심오한 지적, 도덕적 관심이 아니라 음악 내적 요소에 지배되는 경향을 띠었다.

-2011 수능 언어영역 23번 <보기>-

<보기>형 문제였지만, 미시독해와 거시독해가 완벽하다면 사실 <보기>만 읽고도 답이 나옵니다.

우선, 그리스 비극과 근대의 오페라가 대비된다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럼 ‘음악 내적 요소’는 무엇인가요?

물론 예술의 내적 요소는 수능이나 사설, EBS에 종종 출제된 개념이니 배경지식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문장 안에서는 그걸 몰라도 ‘형식적 측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의 <보기>를 제가 읽는 방식대로 바꾸어서 써보겠습니다.

종합 예술의 기원인 그리스 비극은 형식적 측면에서 높은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세계와 삶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이끌었다. 반면 근대의 오페라는 그 발전 과정에서 점차 아리아 위주로 편성됨으로써, 세계와 삶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이 아니라 형식적 측면에 지배되는 경향을 띠었다.

어떤가요? 거시독해가 되면 내용을 한층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정보량도 줄어듭니다. 머릿속에서 내용이 정리되어 훨씬 간결한 글이 되기 때문이죠.

이 문제의 지문 첫 문단을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은 세계관, 인간관, 정치적 이념과 같은 심오한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예술의 소명으로 본다. 반면 현대의 체계 이론 미학은 내용적 구속성에서 벗어난 예술을 진정한 예술로 여긴다. 이는 예술이 미적 유희를 통제하는 모든 외적 연관에서 벗어나 하나의 자기 연관적 체계로 확립되어 온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얻은 결론이다.

보이시나요?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는 ‘내용적 구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외적 연관’입니다. 다 어려운 용어들입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독해가 되는 사람은 주어지는 개념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도 그 개념을 둘러싼 의미 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지문을 완전히 흡수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위의 내용은 지문의 첫 줄, 첫 문단입니다. 이걸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독해 능력에 압도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수능이 아닌 다른 언어 시험에서도 이러한 청킹이 사용됩니다. 2013 PSAT의 첫 두 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화 학습 시스템은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실현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현실 문제는 매우 복잡하므로 정형화된 규칙에 한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매우 큰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

혼자 한번 해보실래요? 필요로 하는 '유연성'은 무엇인가요?

'유연성' = '자기 주도적'입니다. 두 단어 다 모르기 힘든 용어이나 '유연성'이 '자기 주도적'의 문맥상 동의어이며 단순한 재진술임을 인지하지 못하면 나머지 문장들에서 개념 간의 관계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글에서 '문맥'을 이해한다는 것은, 또 '거시독해'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잇고, 문단과 문단을 이어서, 지문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의미 덩어리로 흡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교재의 해설은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저술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글 하나를 잡고 이해할 때까지 읽어보고, 개념들 간의 의미 관계를 확실히 잡아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책을 예시이자, 정답으로 생각하시고, 거시독해의 방법을 체화하셔서 이 교재 밖의 다른 지문들, 그리고 본인이 시험장에서 만날 글들에 적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 1번 문단

육체노동에 대한 경멸과 예배수단 및 선전도구로서의 예술에 대한 존중이라는 **내적 모순**에 직면한 고대인들은 예술가 개인과 그 작품을 **분리**시킴으로써 이 모순의 **해결책**을 찾았다. 즉 **작자는 경멸하면서** 그가 만든 작품은 존중하는 것이다.

아르놀트 하우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1』, 백낙청 옮김. 창작과비평사. p.161

### 독해 포인트

1. '내적 모순'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2. '분리'는 어떻게 '내적 모순'의 '해결책'이 되는가?
3. '작자'를 경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MEMO

## 2번 문단

만약 우주 속의 만물이 근본적으로 다른 모든 것들에 의존하고 있다면, ㉔문제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완전한 해(解)에 접근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진보를 이루었던 것은 분명히 **그러한 방식** 덕분이다. 여기에서도 고전적인 예는 뉴턴의 중력 이론이다. 그 이론은 우리에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 그 물체와 연관된 하나의 수, 즉 질량에만 의존하며 물체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무관하다고 한다. 따라서 ㉕태양이나 행성들의 궤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구조나 구성에 대한 이론이 필요하지는 않다.

스티븐 호킹. 『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 김동광 옮김. 까치글방. p.18

### 독해 포인트

1. '그러한 방식'은 어떤 것인가?
2. ㉔와 ㉕를 엮어서 글쓴이의 주장을 설명하라.

### MEMO

# 문장 독해 해설

## 1번 문단

(1)육체노동에 대한 경멸과 예배수단 및 선전도구로서의 예술에 대한 존중이라는 **내적 모순**에 직면한 고대인들은 예술가 개인과 그 작품을 **분리**시킴으로써 이 모순의 **해결책**을 찾았다. (2)즉 **작자는 경멸하면서** 그가 만든 작품은 존중하는 것이다.

아르놀트 하우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1』, 백낙청 옮김. 창작과비평사. p.161

문장 (1)의 주체가 되는 ‘고대인들’은 육체노동을 경멸하고, 예술은 존중합니다. 글쓰이는 이런 고대인들의 태도가 ‘내적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내적 모순’일까요? 문장의 앞부분만 읽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적 모순’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모순’이라는 단어를 본 순간 ‘육체노동을 경멸하면서 동시에 예술을 존중하는 것이 모순이구나’라는 정보는 머리에 입력해야 합니다.

그 모순의 ‘해결책’은 예술가와 작품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주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예술가와 작품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는 모순이 존재하고, 분리된 상태에서는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술가와 작품을 분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문장 (2)는 ‘즉’이란 부사로 시작합니다. 글쓰이가 ‘즉’을 쓰는 이유는,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 앞선 문장, 특히 ‘분리’의 재진술이라는 점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아까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분리’의 뜻을 제대로 알려줍니다. 예술가와 작품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작자(=예술가)는 경멸하면서 작품은 존중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작자를 왜 경멸할까요?

아까 고대인들은 육체노동을 경멸하고, 예술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고대인들의 태도		
경멸의 대상	육체노동	작자(=예술가)
존중의 대상	예술	작품

아, 그럼 예술가는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군요! 그런데 고대인들은 ‘예술’을 존중했기 때문에, 예술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예술가를 경멸한다는 것이 모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술 작품은 예술 작품대로,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분리’해서 보게 되면, 예술가는 경멸하면서도 그가 만든 예술 작품만큼은 존중하는 것이니, 모순이 해결된다는 얘깁니다.

예술가가 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요? 못과 망치로 조각을 깎고, 붓과 물감으로 벽화를 그리는 것은 육체노동이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당연한 얘기죠? 예술가가 하는 일은 육체노동이고, 고대인들은 육체노동을 경멸했으니 육체노동을 하는 예술가도 경멸했던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어도, 혼자서는 예술가를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거시 독해를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본인의 단점을 메꿀 필요가 있습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법인세**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①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A]**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

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 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01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② 영업 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 ③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 ④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 ⑤ 이론적으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 02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 ② 이윤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 ③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
- ④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 ⑤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

### 03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㉞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과제 : ‘㉞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 가설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 판단  
가설이 참이라면 고 할 수 있으므로 ㉞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 ①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 ②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 ③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 ④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 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

**04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S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 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
- ② S국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 ③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 ④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겠군.
- ⑤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증가하겠군.

**05 문맥상 ㉔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 ②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
- ③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
- ④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 ⑤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늘린다



복습 포인트 (해설을 확인하기 전에 생각해 볼 것)

Q.1[3문단]

‘로열티’의 문맥상 의미는 무엇인가?

01	02	03	04	05
②	⑤	④	③	③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이라는 상위의 범주 아래에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이 있습니다. 특허권은 획득하면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영업 비밀은 일정 조건이 갖춰져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ICT 산업은 이런 지식 재산들을 기반으로 창출된다고 합니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런 지식 재산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 재산을 이용하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진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의 핵심은 과세에 대한 것일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더불어’ 뒤에 있는 내용에 더 집중하면서 읽어야 하지만, 사후적으로 본다면 ‘지식 재산 보호 문제’도 지문 마지막 문단에 다뤄집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금은 원래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거 아닌가? 당연한 애긴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의 내용을 보고 당연한 애기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죠. 이 문장을 왜 준 건지 다음 문장을 통해 파악해봅시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법인세는 이윤(수입-제반 비용)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디지털 세는 이런 법인세가 줄어드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인 거고요. ‘수입-제반 비용’에서 걷는 세금(법인세)이 적어지니까, 제반 비용을 빼지 않고 그냥 수입에 세금(디지털세)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걸 캐치했다면 다음의 내용들이 훨씬 쉽게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법인세는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이 ‘이윤’을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옮기면서 법인세를 회피한답니다. 그 과정을 쫓 따라가봅시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Q.1 로열티가 뭐죠?

A.1 제반 비용입니다. B국의 자회사에서 로열티를 지출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윤을 최소화하는 거라고 하는데, ‘수입-제반 비용’으로 계산되는 이윤을 줄이려면, 수입을 줄이거나 제반 비용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 내기 싫어서 수입을 줄인다는 건 상식에도 배치되고, 돈을 쓰는 상황이니깐, 로열티를 지출하는 것이 제반 비용을 늘리는 것이라고 바꾸어 읽을 수 있죠.

이 지문 전체를 이해했냐 못했냐의 포인트는, ‘디지털세와 법인세의 차이’, ‘로열티의 지문 내 의미’ 이 둘에서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B국에서는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제반 비용을 지출하고, 이게

A국 입장에서는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여기까지 놓치지 않고 읽었다면 거의 다 했습니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그런데 ICT 다국적 기업들이 위의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고 해서, 모든 국가가 그 해결책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세의 도입이 자국의 산업 주도성을 저해할 수도 있을 우려하기 때문이죠.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마지막 문단 [A]에서는 앞선 세금 문제량은 조금 다른, 지식 재산의 보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ICT 산업에서 주도권을 가진 국가들은 **지식 재산을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진다**고 하네요. 자기들이 지식 재산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지식 재산 보호에 관심을 가지는게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sup>1</sup>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sup>2</sup>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sup>3</sup>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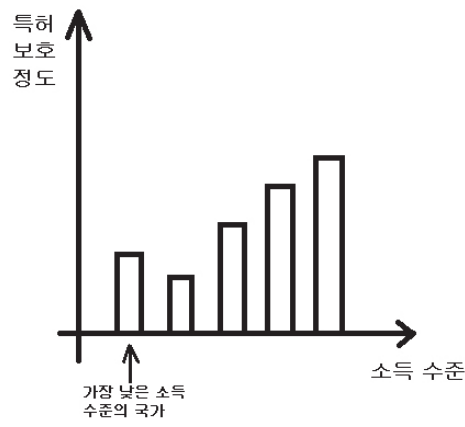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해져도, 강해져도 나름의 단점이 있네요. 보호의 적당한 정도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유인이 저해되는 것을 **유인 비용**, 접근이 막히는 것을 **접근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둘을 합한 것이 최소가 될 때가 가장 적절한 지점이랍니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를 수 시사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는 나라들에서는 국민 소득과 특허 보호 정도가 양의 상관관계에 있지만, 꼴찌보다 조금 더 국민 소득이 높은 국가들은 오히려 꼴찌 수준의 국가보다 특허 보호가 약하다고 하네요. 그림을 그려보면



대략 이렇게 되겠네요. 시험장에서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이 그래프가 전달하는 느낌 정도는 읽으면서 바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01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② 영업 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 ③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 ④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 ⑤ 이론적으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 정답 : ②

영업 비밀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는데, 그런 조건이나, 그 조건이 인정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 해설

- ①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의 하위 개념입니다.
- ③ '법인세 감소'라는 **문제 상황**에 대한 각국의 우려 때문에, **해결책**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 ④ 지문 해설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로열티는 제반 비용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 제반 비용을 키움으로써 이윤(수입-제반 비용)을 줄이고, 이에 따라 이윤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감소합니다.
- ⑤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를 최적 수준으로 규정합니다.

## 02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 ② 이윤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 ③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
- ④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 ⑤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

### 정답 : ⑤

'수입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윤에 부과'되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 해설

- ① 지식 재산 보호는 '법인세 감소'라는 문제 상황과는 별개의 주제이고, 지문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의 수단도 정확히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 ② '수입에 부과'됩니다.
- ③ ICT 산업에 주도적인 국가는 오히려 주도권 유지를 위해 도입에 방어적일 수 있습니다.
- ④ 지문에는 '법인세'를 줄이는 방법만 나왔지, '디지털세'를 줄이는 방법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디지털세를 줄이는 방법은 수입 자체를 줄이는 것 외에는 딱히 추론 가능한 것이 없네요.

03 <보기>는 읽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㉞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과제 : ‘㉞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 가설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 판단  
가설이 참이라면 고 할 수 있으므로 ㉞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 ①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 ②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 ③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 ④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 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

<보기> 해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지문에서는 B국)에서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수입-제반 비용)이 낮다는 가설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가 **제반 비용을 많이 지출한다**는 얘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답 : ④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인다는 것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제반 비용(로열티)'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지문의 ㉞이 이뤄지는 과정이죠.**

해설

- ① ‘수입’이 커지는 것은 논점이 아닙니다. ‘이윤’이 적어지는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 ②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가**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 ③ 수입 대비 제반 비용(로열티)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습니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지출한 제반 비용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게는 수입이 되죠.

⑤ 지문에 정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는 로열티를 지출할 일이 없으니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04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S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 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
- ② S국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 ③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 ④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겠군.
- ⑤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증가하겠군.

**정답 : ③**

지식 재산 보호의 수준이 낮아지면 접근 비용은 작아집니다.

**해설**

- ① 주도적인 국가들은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를 원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 발생하는 **문재인 유인 비용**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보호 수준을 높이기를 바라겠조.
- ②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유인 비용)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 심해집니다.
- ④ 아까 마지막 문단에서 그랬던 그래프를 다시 참고해보세요.
- ⑤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유인 비용**)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접근 비용**)는 증가합니다.

**05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수입-제반비용)을 최소화한다.

- ①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 ②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
- ③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
- ④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 ⑤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늘린다

**정답 : ③**

B국의 자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를 감소시키려면, A국이 아니라 B국의 이윤을 줄여야 합니다.

**해설**

- ① 전체적으로 Z사 전체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 ② **B국이 제반 비용으로 지출하는 로열티는 곧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이 됩니다. 따라서 ㉠의 과정에서 로열티(제반 비용)를 많이 지출할수록 A국의 자회사의 수입은 커지겠조.
- ④ B국의 자회사에서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을 낮추면서, 이윤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최소화하죠.
- ⑤ 로열티를 지출한다는 게, 제반 비용을 늘리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수입-제반비용'으로 계산되는 이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